

군산 자매도시 '김천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성황

드라이브스루 방식 대성황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19사태도 호·영남 화합의 상징인 군산과 경북 김천시간 우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했다. 양 시는 해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로 우의를 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로 양 지역 농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두 도시의 돈독한 우의는 코로나 19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다. 지난 19일 군산월명체육관 광장에서는 김천시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펼쳐졌다. 코로나 사정으로



군산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김천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비록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대성황을 이뤘다. 김천시 농민들이 수확한 포도와 자두, 복숭아, 군산 친환경 양파 및 감자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그 규모가 무려 3천500만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 소득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지난해보다 판매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채행석 소장은 "양도시의 아름다운 인연은 계속 될 것이다"며 "단순한 지역 행사를 떠나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군산시, 김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군산시는 19일 월명체육관 앞에서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가졌다.

경북 김천시와 군산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올해로 13회째 농산물 교류를 하면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김천에서 출하된 포도와 자두, 복숭아와 군산 친환경 양파 및 감자 등을 사전 주문받아 총 2,219박스(3,500여만원) 물량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1,755상자(3,000여만원)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뛰어난 품질과 착한가격이 입소문 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시가 월명체육관 앞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김천시의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산서 '김천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열려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 진행

군산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경북 김천시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군산월명체육관 앞에서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 자매도시의 교류를 확대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판로가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에게 도움을 주고자 김천시의 우수 농특산물 및 군산 친환경농산물을 사전 주문 받아 직거래 장터로 진행했다.

직거래행사 품목은 김천시에서 출하된 포도와 자두, 복숭아 및 군산 친환경 양파 및 감자 등으로 총 2219박스, 3500여만원의 물량을 현장에서 사전 주문자에게 전달했다.

/군산=강경창기자·kang@

군산시-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군산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경상북도 김천시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군산월명체육관 앞에서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지난 19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어 올해로 13회째 농산물 교류를 맺는 등 남다른 우정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두 자매도시의 교류를 확대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판로가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김천시의 우수 농특산물 및 군산 친환경농산물을 사전 주문 받아 직거래 장터로 진행했다.

직거래행사 품목은 김천시에서 출하된 포도와 자두, 복숭아 및 군산 친환경 양파 및 감자 등으로 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등에 적극 홍보해 총 2,219박스 3천5백여만원의 물량을 현장에서 사전 주문자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직거래행사에서는 1,755상자



(3천여만원 상당)를 판매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판매액 대비 18% 증가했다. 판매액 상승 이유는 유통에 따른 마진 최소화 및 품질까지 뛰어난 것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많은 군산시민이 찾는 것으로 파악된다.

채행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김천시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군산시 친환경농산물을 한자리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에 군산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교병민기자